

팔꿈치 수술로... 무릎부상으로... 꿈 접었던 그들 '동강대 야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꿈★꾼다

스포츠 포커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1년만인 지난 83년. 출범 초기 야구붐을 타고 이현세의 야구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 출간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잠시 스토리를 들춰보면 주인공 홍성(까치)이 엄지를 두고 마동탁과 무리한 대결을 벌이다 어깨 부상을 입고 손병호 감독을 만나 외인구단에 입단한다.

외인구단에는 한쪽 팔을 잃은 최관, 마동탁에 놀림 당하던 퇴물투수 조상구, 미국인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혼혈아 하국상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이미 폐기 처분된 선수들이 모여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은 무인도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지옥훈련을 견뎌 결국 한국 야구계를 평정하게 된다.

당시 이 만화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만화속 주인공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꼈고 이들과 같이 되고 싶어했다.

23년이 흐른 2006년 광주.

한때 야구를 포기했던 22명의 야구선수들이 모여 하루하루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벌이며 '공포의 외인구단'을 꿈꾸고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창단한 광주 동강대 야구팀이 그 주인공.

해태 타이거즈 시절 '총알탄 사나이'란 별명으로 명성을 떨쳤던 문희수(41) 감독이 창단과 함께 이들을 끌어들이며 '제2의 인생'을 조련하고 있다.

선수들은 개인마다 고교시절 무릎이나 팔꿈치 수술을 했는가 하면 한때 방황해 중도에 야구를 포기하는 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대학 야구사 새롭게 쓰겠다"

에이스 우완투수인 배병진(21·2학년·이하 사회체육학과)은 서울고 재학시절 팔꿈치 수술로 야구를 포기했다가 문 감독의 권유로 야구에 어렵게 복귀했다.

대학 1학년때는 수습 후유증으로 재활훈련에 매달렸으나 2학년때부터 기량이 급속히 회복돼 최고 구속 147km를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에이스 고을(21·2학년)도 191cm 90kg의 육중한 몸에서 뿌리는 147km대의 직구가 일품



동강대 야구팀이 지난 15일 오후 첨단 KT 야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문희수 감독(오른쪽), 이용훈 코치(왼쪽)와 함께 하이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004년 창단한 광주 동강대 야구팀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체력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희수 감독 사비털어 전국돌며 선수 스카우트

창단 3년에 2년제 대학선 첫 전국대회 결선 진출

이이다. 화순고를 졸업한 고을은 당시 적성에 맞지 않는 외야수로 뽑혔다 졸업과 동시에 야구의 꿈을 접었다.

다행히 고을은 고교시절부터 자신을 지켜본 문 감독의 권유로 동강대에 입학, 투수 전업에 성공했다. 졸업을 앞둔 현재 여러 프로구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고을은 "동강대 야구팀에 들어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 하다"면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팀내 1번과 3번 타자인 이윤재와 조익수(이상 2학년)는 현천고 2학년때 학교 야구부를 박차고 나와 한때 방황기를 보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고 3학년때부터 문 감독의 밑에서 틀들이 야구를 배웠고 동강대 야구팀의 일원이 됐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야구부 편입이 목표라는 이들은 "동강대에서 좋아하는 야구를 맘껏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팀 주장이자 고을과 친구인 박창민(21·2학년)은 화순고 2학년 시절 양쪽 무릎수술을 받고 3학년때 벤치를 지켜야 했다.

결국 대학진학도, 프로 진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시절부터 야구만 해온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야구를 사랑하면서도 야구를 포기해야 했던 동강대 야구팀 22인이 한국 대학 야구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을 10월 전국체전 광주대표 출전

지난 4월에는 한국 대학야구 사상 2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선에 오르는 과반을 연출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 87회 전국체전의 광주 대표 출전자격도 따냈다.

창단 역사는 3년에 불과하지만 졸업 선배들 중 상당수는 프로 구단과 4년제 대학으로 스카우트됐다. 국내 2년제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을 2월 졸업한 박소민은 연습생이지만 두산에 투수로 입단했고 차정구는 삼성 2군에서 외야수로 활약중이다. 투수 이재구는 성균관대, 원형진은 동국대, 외야수 안동영은 원광대에서 4번타자로 뛰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성과는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준 학교측의 배려가 컸다.

이들은 창단초 만해도 변변한 야구 장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문 감독은 "선수는 커녕 선수들이 이동할 버스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문 감독은 "출발 초기 부족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사비털어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겨우 데려온 선수들도 실력이 신동치 않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랐고 선수들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했다.

문 감독은 "고교 시절 비록 빛을 못 본 선수들이지만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기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수들의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좋은 성적을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재성 사회체육학과장 "최종목표는 대학 정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동강대 야구팀을 지켜봐 주세요, 큰 일을 낼 겁니다"

노재성 동강대학 사회체육학과장(42)은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결선 진출에 이어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발탁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노 학과장은 "지난 2004년 부상 등으로 야구를 포기한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역 체육계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구팀을 창단하게 됐다"면서 "사실 창단 당시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내 그 기쁨은 두배"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강대 야구팀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대학야구의 최정상에 서는 것"이라며 "이들이 성공적인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한민국' (Daehanmin-guk), '부동산 교환', 'H.R.C 김충환', and various local real estate services.

A large grid of small advertisements for various businesses such as '취향증화오리', '동광부동산', '아주커치주말대동점', and others.